



OUTSIDE ROOM

The Room That Isn't One Of The Ten

GILLETTE의 바깥 방

열 개 가운데 하나가 아닌 방

나는 지적인 사가가 아니라 시골의 사가를 썼다. 내 학력으로는 달리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어 성적 4점으로, 나는 운동 실적과 한 여자, 그리고 내 와인 5리터를 선물로 받고 흡족해한 교장 덕분에 겨우 졸업장을 땀다.

하하하하.

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연습 하나를 주고 싶었고, 그것에는 학위도 박사 학위도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열 개의 방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의 삶의 한 장을 담았다고 생각했지만, 주위를 둘러보고는 무언가를 바깥에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을?

나를.

나의 불완전함, 나의 악덕, 나의 기질, 남을 속이는 구석들, 나의 예민함, 앙갚음하고 싶은 마음, 하나의 형식 안에 담긴 부조리, 그리고 실제로는 흥미로운 사람도 아니면서 늘 관심을 받는 버릇까지 함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나를 웃게 했다.

그렇다, 내 곁에는 언제나 나에게 길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를, 마치 나를 무언가에 입문 시키려는 듯이. 그러나 나는 수도회 안에 있지도, 영적인 단체 안에 있지도 않았다. 나는 나 자신의 삶 안에 있었고, 그곳에서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당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하지 않았다.

길게 끌지 말자. 독자는 누구나 지치고 결말을 알고 싶어 하니까. 어쩌면 언젠가 나는 이야기의 맨 앞에 결말을 쓰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모두가 끝이야말로 유일한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 죽음을 기다리기 전에, 나는 언제나 그것을 맞이할 이상적인 장소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믿어 달라, 그토록 많은 선택지와 그토록 많은 가능성 가운데에서

도, 나는 한 여자의 품보다 더 좋은 곳을 찾지 못한다. 그녀가 내 여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는 별로 개의치 않는다.

하하하하하.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모든 것이 비릇된 곳이자 모든 것이 끝나는 곳. 그러나 누구도 한 편의 글만큼 잊히지 않는 존재가 되지는 못한다.

Ferdinando

추신: 나는 약속을 지키는 남자이고 여자들은 그것을 알아본다. 그리고 그것이 몇 번의 시원찮았던 활약을 메워 준다.